



environment NEWS

국내소식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본격 출범

금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국내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이종혁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승한 회장)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29일,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현재 EU 27개국('05~), 일본('05~), 호주('11. 7~), 미국·캐나다('12~) 등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도 급팽창 중이다.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함)

* 세계탄소시장(세계은행: 312억\$('06) → 641억\$('07) → 1,263억\$('08) → 1,500억\$('10)

환경부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의 본격 도입과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05 ~ '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하여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

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주창국으로서, 금년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출범

한국환경공단이 1월 1일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양 기관의 폐비닐수거처리,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이관,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기능을 효율화하고, 미래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이 재편 되었다. 박승환 초대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의 미래 핵심기능과 비전 및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K eco)은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통합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종합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환경관리로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21C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권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은 기업체간의 배출권거래량, 가격동향, 타사의 거래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 및 승인 기능, 배출권거래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게 되어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08년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3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연도별로 부여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6월부터 맥주 맛은 달라도 병은 동일

금년 여름부터 맥주 맛은 달라도 병은 똑같이 진다. 국내 맥주업체의 양대 라이벌인 OB맥주와 하이트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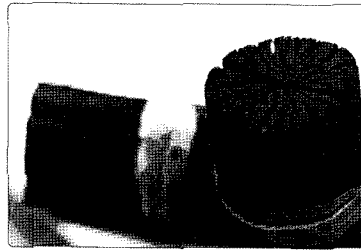
환경뉴스

01

가 6월 1일부터 가장 흔히 쓰이는 500ml와 640ml맥주병을 공용으로 제작한 뒤 수거해 함께 재사용하기로 했다. 동양맥주(OB맥주의 전신), 조선맥주(하이트맥주의 전신)시절부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온 두 업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모처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맥주업계는 이미 1997년부터 용량이 똑같은 빈병을 수거한 뒤 공동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에 원래 제조업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수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점이 문제였다. 앞으로 용량뿐 아니라 모양까지 똑같은 맥주병을 함께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병의 선별·물류비용 및 신병투입 감소 등으로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맥주 공병의 공용화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녹색성장' 실천사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숫가마 대기오염 심각,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환경부는 숫가마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숫가마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탄화시설)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먼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0mg/Sm³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 오염도는 모든 조사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이하)을 13 ~ 41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된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숫가마 짚질방 중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안의 용적이 30m³이상인 숫가마의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할 경우 숫가마 사업장은 배출시설의 설치

를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따뜻한 온(溫)맵시로 지구를 시원하게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복장과 온맵시복장 착용에 의한 피부온도 변화와 온맵시복장 착용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내복 착용의 효과를 피부온도로 분석한 결과, 22℃에서 일반복장 착용시와 19.6℃에서 온맵시복장 착용시의 피부온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내복의 착용만으로 난방온도를 2.4℃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복 착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한 결과, 난방온도를 1℃ 낮추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난방온도를 2.4℃ 낮추면 공공·상업부문에서 연간 115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344만톤의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쿨맵시복장 착용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온맵시 복장에 의한 효과와 합산하여 산정한 결과, 여름철 노타이와 반팔셔츠, 겨울철 내복의 착용만으로 연간 156만TOE의 에너지와 546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어린 소나무 약 20억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녹색윤리경영, 국립공원

바우처제도 금년에 더욱 확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녹색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한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를 금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6,000여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Voucher) 제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무료로 운영되는 각종 서비스에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는 이 용권을 지원하는 제도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에게 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비를 지원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 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방과후 학습지원 등으로 다양화된다. 지난해에는 의류제조판매사인 테베이직하우스가 2천 3백 만원을 지원하여 845명에게 국립공원 바우처 혜택이 돌아갔다. 금년부터는 국립공원 사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바우처 혜택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주어지도록 국립공원 바우처 운영 위원회도 조직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취약자의 마음에 파사로운 햇살을 비춰 주어 미소 짓는 서민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는

태안 해안국립공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07. 12. 7) 2년 이 지난 지금 해안국립공원 지역의 해양수질과 어종이 사고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난해 12월말 발표했다.

해양수질 중 용존산소, pH 등 일반 항목과 영양염류는 이전 5년간 자료와 차이가 없고, 유분은 해역수질환경기준 1등급(0.01mg/L) 보다 낮으며, 중금속도 기준보다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학암포 및 연포의 해양어류(지인망) 종수는 사고 이후 크게 감소('05(21종/43종) → '08(15종/32종))하였으나, '09년(19종/40종) 부터 증가하여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안 해안국립공원 북부해안(45km)과 일부도서(가의도, 장고도, 곳도, 대청도, 추도)에는 아직도 미약한 잔존유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식물프랑크톤의 3대 우점종은 '05년의 상태로 회복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질 및 어종이 회복단계에 접어든 이면에는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추진한 잔존유류 제거사업 추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는 태안 해안국립공원 지역에 '10년부터 '19년까지 총 173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계 모니터링, 공원내 탐방·기반시설 설치, 잔존유류 제거, 훼손지 복구사업

등을 통해 태안지역과 국립 공원이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생활로 환경도 가계도 튼튼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정은 매달 평균적으로 415kg의 CO₂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가정 총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 단독주택 > 다세대 > 아파트의 순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었다. ‘에너지 절약’ 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이 경우 매달 338kg의 CO₂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가정에 비해 약 18%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일반 가정에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경우 가구당 평균 월 40.1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으며, 연간 약 11만원의 가계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바람직한 저탄소 생활양식을 난방/취사, 전기, 수도, 폐기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실내 난방온도는 20℃로 유지하고
- TV 시청시간을 1일 1시간 줄이기
- 에어컨 및 컴퓨터는 1일 2시간 이내 사용
- 냉장고 60% 채워서 가동
-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가전기기의 플러그 뽑기
- 물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기 사용